

愛犬家の 知識

李 丙 祥

길들이는법(家庭訓練法 Housebreaking)

가정훈련(家庭訓練)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훈련(訓練)이 된 개라 할지라도 주인과 집이 바뀌는 경우에는 또 다시 새로운 냄새와 함께 새로운 체험(體驗)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알기쉽게 말하던 환경(環境)이 바뀌는 경우에는 잘못을 이르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때에 벌(罰)을 하게되면 그 개는 다시 고치기 힘든 심적(心的)인 타격(打擊)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 인간(人間)이 어린 아이를 이성(理性)과 교육(教育)으로 양육(養育) 하듯이 강아지도 똑 같은 방법(方法)으로 길러야 할것이다.

즉 강아지를 기르는데도 일정한 계획(計劃)과 규칙(規則)을 세워놓고 그것을 엄격(嚴格)히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重要)한 일이다.

예를들면 강아지가 아늑(安)한-규정(規定)된 시간(時間) 보다 먼저 나가려고하는 증거(證據)가 있더라도 반드시 규정된 시간에 그 개를 밖으로 내 놓을 것이며 또 끈(leash)을 매 두었던 개는 끈(leash)을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할것이며 주인은 반드시 그 개의 행동(行動)을 일일이 감시(監視)하고 만일 잘못된 행동(行動)이나 금지(禁止)된 장소(場所)에 들어 갈때에는 그 즉시에서 “아서 아서” “no no”하고 날카롭고도 엄격한 목소리로 그 행동(行動)을 곧 중지(停止)시켜야 한다. 이때에 채찍 같은 것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발길로 걷어차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개는 주인이 싫어하는 목소리와 표정(表情)을 잘 이해(理解)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하루 이틀 훈련(訓練)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자연 스럽게 가정훈련(家庭訓練)이 되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사용하는 말(用語)은 언제나 같은 말 같은 어조(語調)로 짧막한 말과 손짓(視符)으로 표시(表示)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가정(家庭)에서 길들이는 훈련(訓練)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필요한 훈련(訓練)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먹이는(Feeding) 개와 가정간(家庭間)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訓練)에 기초(基礎)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강아지가 물어 뜯으면서 장난할 수 있는 작난감(doors)을 마련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주인은 강아지가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맵시 있는 작난감(door)을 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작난감(door)은 반드시 씹어서 부서지지 않고 또 목구멍으로 삼켜지지도 않는 영구성(永久性) 있는 튼튼한 것을 구해서 줄것이며 따라서 이 작난감(door)이 그의 소유물(所有物)이라는 것을 확신(確信)시켜야 한다.

그리고 강아지가 정해준 자기 작난감(Door)을 가지고 놀때에는 칭찬해 주고 그밖에 슬리퍼(Slippers)나 신짚 또는 걸상 같은 것을 물어 뜯거든 곧 “아서” “no”하고 날카롭고 엄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곧 빼앗거나 제지(制止)하고 그 강아지의 전용(專用) 작난감을 입에 넣어 주어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로 하여금 주인으로부터 제공(提供)된 물건(物件)만을 갖고 놀게 하는 것이다.

이 시기(時期)에 특히 주의 할것은 만일 강아지가 해서는 안될 것을 할때 그 물건(物件)을 빼앗거나 제지(制止)하기만 하고 “아서” “no”하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강아지를 때리기만 하면 훈련(訓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理由)는 강아지가 그 물건(物件)을 왜 빼어 가는지 또 왜 제지(制止)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서” 또는 “no”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중지(中止)시켜야 된다.

즉 부정(否定)하는 명령(命令) “아서” “no”하는 이외의 명령(命令)에 있어서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마치 세살난 어린이가 강아지하고 놀면서 말하듯이 하는것이 효과적(效果的)임으로 우리는 강아지를 훈련(訓練)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많은 지식(知識)을 가져야 할것이다.

우리는 훈련(訓練)을 시작(始作)함에 있어서 개를 벌(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똥똥 똥똥 신문(新聞)

으로 때릴려고 위협하는 따위의 캐케 목은 생각으로 부터 벗어 나야 한다. 그 이유(理由)는 어떤개는 손에 신문(신문)을 사람만 보아도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서며 짓거나 심지어는 다라나는 형편(形便)이니 이것은 결코 고치기 어려운 나쁜 심리(心理)가 조장(助長)된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또 한가지 연구(研究)해야 될것은 개가 주인에게나 방문객(訪問客)에게 뛰어 오르는 것에 대해서이다. 즉 개가 뛰어 오르는것은 잠깐 앞발을 잡았다가 놓아 주고 “아저” “no”하고 명령(命令)을 하고 계속하여 목적지(目的地)를 행하여 걸어 갈것이며 또 뛰어 올것은 또다시 앞발을 붙들고 뒷발을 약간 밟아 주라 이것은 개의 조건반사(條件反射)의 심리(心理)를 응용(應用)한 것이다. 이와같이 온 가족들이 다 같은 방법(方法)을 거듭하는 동안에 뛰어 오르지 않는 훈련(訓練)이 된다. 개는 주로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경험(經驗)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므로 좋은 경험(經驗)은 좋은 버릇이 되는 것이므로 좋은 경험(經驗)을 갖게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義務)이다.

또 나쁜버릇이 있는 개는 이책을 보고 고칠 수 있다. 즉 강아지는 생후(生後) 6 개월까지는 개와 가정(家庭)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잘 길러야 한다. 강아지때 부터 훈련(訓練)을 받은 개는 문명(文明)의 일원(一員)으로서 환영을 받을것이며 가정(家庭)과 친구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훈련(訓練)을 잘못하여 나쁜 개가 되면 주인과 그 개는 어대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가정(家庭)의 방문객(訪問客)도 적어질 것이다.

끝으로 개의 목걸이(Collar)와 사슬(leash)에 대해서 말 하고자 한다.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動作)있을 정도까지 자라면(成長)은 끈 목걸이를 해서 사슬을 매놓는 훈련(訓練)이 필요(必要)하다.

주인은 개끈(leash)을 잡고 강아지와 같이 산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아지로 하여금 목거리(Collar)와 사슬 또는 개끈(matter of leash)은 그의 친구라는 인식(認識)을 갖게 하여야 한다.

첫째 목걸이에 사슬을 매기전에 2~3일 동안 강아지에게 목걸이만 매고 돌아 다니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슬(leash)을 처음 매 놓을 때는 끈 강아지를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강아지는 집안을 몇바퀴 돌며 연습을 시키어 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때에 비로

서 강아지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산보를 하여야 한다.

처음에 “앉아” “라” “sit, down, come” 등의 명령(命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것은 모두 집안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훈련(訓練) 중에 참다 못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개를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 먼저 개를 통하여 자신(自身)의 수양(修養)이 필요(必要)할 것이다.

하여튼 목거리(Collar)와 사슬(leash)을 매어서 가르치면 개를 다루기(訓練)가 쉽 쉬울 것이다.

강아지를 주인의 지시(指示)에 의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앞에 또는 뒤에서 따라 다니는 훈련(訓練)을 시켜야 한다.

또 강아지를 주인의 왼쪽, 오른쪽, 또는 앞에 놓고 개끈(leash)을 한손에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강아지의 뒷등을 쓰다듬으며 “앉아” “Sit”라고 명령(命令)하라. 개나 그 소유자(所有者)가 비정상적(非正常的)이 아닌 이상 이것은 15분간이면 가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엎드려” “down”하는 것도 같은 방법(方法)으로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강아지가 앉는 훈련(訓練)이 완전(完全)히 되었거든 강아지가 앉아 있지 명령(命令)을 한 후에 “엎드려” “down”하는 명령(命令)과 동시(同時)에 강아지의 앞발을 잡아 당긴다. 이 훈련(訓練)은 5분간에 약 6회 정도로 시키면 곧 배울 수 있다. 주인이 개를 부르면 곧 달려오는 개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개 사슬(leash)을 풀어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뿌론”(개이름) “이리와” “Come, Buron”하고 불러 보라 대개 이것은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달려 오거든 그 보상(保償)으로 그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

만일에 개가 잘 못 알아 채리거든 개끈(leash)을 길게 약 10m 배 놓고 한번 불러 보라. 만일에 개가 곧 달려오지 않거든 개끈(leash)을 조금 잡아 다니고 개를 불러라 곧 달려올것이다. 즉 동작(動作)이 개의 자유의사(自由意思)로 온것같이 등을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라 다른 모든 훈련(訓練)도 이와같은 방법(方法)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혹시 개가 달려도 오지 않을때 그 개를 불들어 벌(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理由)는 도리어 개를 쫓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손질하기(Grooming)

우리 가정(家庭)에서와 같이 Weimaraner 에게도 손질을 잘해주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우리 인간(人間)이 자주 목욕을 하고 새옷을 가라 입고 또 구

두를 닦았을 때와 똑 같이 개들도 잘 손질해 주면 뽑내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잘 차리고 나가면 사회(社會)에서도 대우해 주듯이 우리의 개도 좋게 보이면 그 개 뿐만 아니라 소유자(所有者)를 더 높이 평가(評價)하게 되는 것이다.

잘 가꾸어진 개는 다른 사람에게도 안도감(安度感)을 줄 수 있으며 개 자신(自身)에게도 깨끗하다는 것은 그 개의 건강(健康)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결코 목욕을 자주 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리어 해(害)가 되는 것이니 정말 더럽고 흙이 많이 묻었기 전에는 절대로 개는 목욕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개를 잘 손질 한다는 것은 개의 걸털을 아름답고 광택(光澤) 있게 손질해 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알맞은 음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즉 알맞은 음식은 개의 건강을 좌우(左右)하여 털의 광택(光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매일같이 솔노 쓸고 빗으로 빗어 줌으로써 더욱 털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질은 많이 할수록 더욱 털이 더 좋아 진다는 것이다.

Weimananer는 다른 털많은 개 모양으로 더 이상 손질도 필요없고 목욕도 극히 최소(最少)로 할 것이며 단지 하루에 15분간의 솔질만으로써 깨끗하고 반짝이는 회색 털을 가질 수 있다.

이 개의 주인이 아무리 바빠도 솔질을 하기 위하여 하루에 15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낼 수가 있을 것이며 만약 이런일에 시간(時間)을 내고 싶지 않거든 개를 기르지 말 것이다. 즉 솔질은 털과 가죽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며 또 낡은 털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면 수의사(獸醫師)에게 갔다. 주던 돈이 절약 될 것이다.

우리 인간(人間)이 발톱을 잘 깎아 내듯이 우리가 기르는 개의 발톱도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 대부분(大部分)의 개의 경우 발톱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의 체중(體重)에 바란스(balance)가 맞지 않는 자세(姿勢)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뼈(骨格)와 근육(筋肉)과 다리(leg)의 신경(神經)을 파괴(破壞)하는 것이며 그 반대로 개의 발톱을 잘 다듬어 주는 것은 실제로 절름발이를 생기(生氣)있게 하는 것이다. 수의과병원(獸醫科病院)에 가면 개의 발톱을 깎는데 편리한 가위가 있을 것이니 당신은 수의사(獸醫師)에게 그것을 사용(使用)하는 방법(方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당신이 직접하는 것보다 수의사(獸醫師)에게 맡기든지 또는 오랫동안 개를 길러본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개의 귀(耳)는 잘 더럽게 됨으로 알뜰살뜰이나 또는 물기 있는 헌겉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귓속을 소제(消除) 할 때는 특히 주의(注意)해야 된다. 가장 안전(安全)한 방법(方法)은 약속에 피마자 기름(Castor oil)으로 씻어 내는 것이다. 이때에 고막(鼓膜)을 상(傷)할 염려가 있으므로 너무 깊이 밀어 넣지 말 것이다.

또 피마자 기름(Castor oil)에 담겨 있었던 약속이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끔 개의 눈을 닦으라 이 기름은 눈에 아무런 해(害)도 없다.

개는 늘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必要)도 없는 동물이나 인간(人間)의 신체구조(身體構造)와 루선(淚腺)은 매일같이 씻는 것이 신선하고 깨끗한 것이다.

외국(外國)에서는 많은 개들이 목욕이 부족해서 보다 너무 목욕을 해서 해(害)를 입었다고 한다. 목욕을 많이 하면 개를 보호하고 있는 자연기름(natural oils)이 제거(除去)되기 때문이다.

목욕은 한달에 한번이상 시키지 말 것이며 솔질은 매일 15분간씩 해도 괜찮다. Weimaraner 같이 좋고 깨끗한 개는 더러운 곳에 굴러 드러가지 않았는 한 절대로 목욕을 시킬 필요가 없다. 부득이 목욕을 하여야 할 때에는 기름이 많은 좋은 비누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욕을 한 후에는 습기를 없이 하기 위하여 전기(電氣)로 머리를 말리는(hair dryer) 기계를 사용하면 딱 도움이 될 것이며 큰 수건(oldturkish towel)으로 개를 둘러 쌓아서 핀(pin)을 꽂아 두면 된다.

몸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밖에 내보내서는 안되며 특히 겨울에는 오랫동안(約 4~5 時間) 집안에서 말려야 한다. 그밖에 자세한 것은 수의사(獸醫師)에게 물어 보기로 하자.

훈련(訓練 Training)

어느 품종(breed)의 훈련(Training)이 든지 전장(前章)에서 말한바와 같이 모든 개는 가정 기본훈련(The basic home training)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要素)에 의하여 좌우(左右)된다. 모든 개들은 보통 훈련(formal training)은 다 받을 수 있다. 개가 훈련(訓練)을 받는다는 것은 개의 가치(價値)를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대한 존경심(尊敬心)을 증가시킨다.

Weimaraner은 그 종족(種族)의 유지(維持)를 위하여 150년 간이나 일(使役)하고 살아온 품종(品種)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한 계획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 한다.

즉 개는 훈련(訓練) 시간(時間)을 기다린다. 맨 처음 우리는 어떤 품종(品種)이고 훈련(訓練)시킬 수 있는 복종(服從)에 대한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하다. 우리가 개와 같이 어떤 일을 하려면 개의 기초적(基礎的)인 복종훈련(服從訓練)이 절대 필요(必要)한 것이다.

Weimaraner은 순종(順從 obedience)하는 특성(特性)이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順從)하는 훈련(訓練)을 시키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훈련(訓練)하는 방법을 책에서 부터 배울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순종(順從)은 개와 그 주인이 함께 사슬(leash)을 매고 또 풀어놓고 산보하며 훈련(訓練)하는데 있다. 그러면 산보(walk)는 개를 억지로 끌고 다니지(tug-of-war) 않아도 된다.

다음은 다시 부르기를 훈련(訓練)시킨다. 주인이 개를 불러때에 곧 달려오지 않거든 주인이 개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며 개의 이름을 부르면 곧 달려올 것이다.

장애 물이 없이 물건을 찾아오는 것과 장애물을 놓고 물건을 찾아오는 두 가지의 훈련(訓練)이 있다. 두 가지의 경우 전부 목제아령(木製亞鈴 Wooden dumbbell)을 던져서 개에게 명령(命令)하여 찾아오게 한다.

이 두 가지 훈련(訓練)을 시킬때에는 야외(野外)에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오랫동안 앉기와 엎드리기 (ongsits and down)를 시킨다. 즉 주인이 보이는 장소(場所)에서 1~3분간 기다리게 하고 또 주인이 안 보이는데서 1~3분간 앉아서 기다리게 한다. 또 엎드려서 3~5분간 기다리는 훈련(訓練)을 한다. 이것이 완전히 되었거든 다른 여러마리(5~14) 개와 같이 훈련(訓練)을 하는 것이다.

콧냄새(嗅覺)로 잊어 버린 물건을 찾고 입으로(口令) 명령을 하지 않고 손짓이나 그밖에 표시(表示)로 운동(運動)을 시키는 것도 유익(有益)한 훈련(訓練)이라고 생각한다. 또 점프(Jumping) 훈련(訓練)도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훈련(訓練)이 실제적(實

際的) 가치가 있으며 또 개의 지능(知能) 발달(發達)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Weimaraner은 코가 예민하여 짐승들의 발자국을 잘 추적(追跡)한다. 그러므로 사냥개(獵犬)로써 명성(名聲)이 높다. 따라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내는데도 유능(有能)한 개인고로 넓은 지역에서 훈련(訓練)을 시킨다면 실제적(家際的)인 이용(利用) 가치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방면에 특히 유명한 개로써 "Tell"이라는 개는 16명의 경찰(警察)도 할 수 없는 일도 실패(失敗) 없이 거뜬히 했다는 보고가 있다. Weimaraner은 사냥개이기 때문에 훌륭한 군용견(軍用犬)으로도 훈련(訓練)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Weimaraner은 가정견(家庭犬)으로써도 모든면에 가장 우수(優秀)한 파트너(partner)로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Weimaraner의 역사(歷史)를 보면 들판에서 훌륭한 사냥개로서 많은 기록(記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년에 와서는 들판에서는 거의 제외 되었으며 어느 특정한 게임(game)에서만 좋은 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Weimaraner가 만능견(萬能犬)으로 생각하고 무엇이고 훈련(訓練)시키지 않아도 다 잘 한다고 하는 전전에 속지 말고 길을 잘드러야한다. 어떤 책에도 Weimaraner을 훈련(訓練)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으며 또 어떤 사람도 이 개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완전(完全)히 아는 사람은 전세계(全世界)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것을 개에게 가르치고 싶거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의 소유자(所有者)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쳤는지 물어 보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訓練)시켜 볼 것이다. 하여튼 Weimaraner은 책으로 훈련(訓練)시킬 수 있는 개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둔다.

즉 책자에 써 있는 대로 훈련(訓練)을 하려다가는 도리어 혼란만 이르킬 것이니 Weimaraner을 많이 기르고 또 오랫동안 훈련(訓練)에 많은 경험(經驗)을 가진 애견가(愛犬家)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AKC의 발행인 The Complete Dog Book과 주로 Jack Baird씨의 pet Weimaraner을 참고로 하였다. (서울獸醫師會常務理事) (계속)